

19

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

창 4:1~8, 히 11:1~4

찬송 182장 (구주의 십자가 보혈로), 202장 (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)



1.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.
2. 아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.



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던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(창 4:1~5)



을 마음판에 새기기 (암송)

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(히 11:4)

By faith Abel offered 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, through which he obtained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, God testifying of his gifts; and through it he being dead still speaks. (He 11:4)

-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.
- ② ‘의로운 자’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?



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

- ①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었으며,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정성을 들인 것으로 보일까요(창 4:3~4)?

2

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? 그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(창 4:4, 히 11:4)?

3

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(롬 10:2~3)?

4

아벨은 하나님께 '의로운 자'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. 우리 각자는 어떻게 '의로운 자'라는 증거를 얻었는지 교제해 봅시다(엡 1:7, 13).



을 삶에 적용하기

오늘의 말씀
(말씀 쓰기)

오늘의 기도
(감사 / 회개 / 간구)

일

욘 35:7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daily word.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daily prayer.

의

합 2:4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daily word.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daily prayer.

화

막 10:52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daily word.

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daily prayer.

↑

롬 10:2

↓

롬 10:3

↓

엡 2:8

↓

히 11:4



하나님이 원하시는 것

교회학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.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내용을 가지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.

“선생님,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?”

“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” 그러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되물었습니다.

“학생은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을 원했다고 생각합니까?”

학생은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.

“글쎄요,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는 아브라함을 원했습니다.” “맞습니다. 바로 그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.”

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(삼상 15:22)



질문 있어요~



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쌍씩 탔습니까?
아니면 암수 일곱 쌍씩 탔습니까?

창세기 6장 19~20절에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실으라고 하셨는데, 7장 2절에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,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방주에 실으라고 했습니다. 이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은 암수 둘씩 방주에 싣되, 특별히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. 그 이유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 일행이 배에서 내려서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

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(창 8:20)

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 정결한 짐승들이었습니다.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삼기 위해 일곱씩 실으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만약 암수 한 쌍씩만 실었다면 제물로 바쳐져서 종족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.